

전국한우협회, 2026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개최

대전·세종·충남도지회서 첫 법정교육 실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14일 대전·세종·충남도 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올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한우농가가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한우농가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총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교육을 강화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민권식 사무국장

의 '축산관련법령 및 축산차량등록'과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관리' △농업기술센터 김도현 지도사의 '축산환경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세균 부장의 '축산농가 환경개선' 등 현장 밀착형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조만간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여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지

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교육 내용을 현장에 실천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앞으로 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가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한우 종사자 보수교육단체사진 (농협사료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가 초청 안전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1일 세종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이근배 사무관을 초청해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기관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안전 인문학 △2025년 중대재해 통계 △국내 중대재해 발생 특징 △산업재해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중요성과 사고 예방 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사무실과 현장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 등을 다뤄 직원들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에 초

점을 맞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내용을 농립 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업체에 사전 공유했으며, 20여 명의 관계자가 교육에 참석해 안전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고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작업 현장의 안전까지 고려한 안전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상반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농협사료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16일 강동구 소재 본사에서 임원 및 사무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종합 경영 실적 분석, 연도말 목표달성을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등을 간결명료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유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상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영시스템(ISO/UNDP 5300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강필 대표이사는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농가상생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축

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강필 대표이사는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농가상생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축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ISO/UNDP 53001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축산현장의 탄소중립에 앞장섬으로써 정부 주도의 2026 녹색대전환(K-GX)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은 임원 및 사무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분석회의 개최(농협사료 제공)

한돈자조금, 한돈케이크 인증점 2기 모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을 활용한 프리미엄 상품 '한돈케이크'의 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2026 한돈케이크 인증점' 2기 모집을 실시한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4월 한돈케이크 인증점 사업을 도입해 전국 12개 업체를 1기 인증점으로 선정하고, 한돈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판매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번 2기 모집은 더 많

은 지역과 업장이 한돈케이크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혀 한돈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한돈만을 취급하는 정육점과 육가공 전문점, 정육형 식당 등 당일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업장이다. 선정된 인증점에는 한돈케이크 인증점 자격과 함께 한돈인증점 자격이 부여되며,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한돈몰' 입점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제휴 마케팅 등 다양한 판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조·위생 교육과 표준 레시피 교육을 통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30일(목) 15시까지 이메일 및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수교육, 제품 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점을 선정하며, 자세한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돈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 추진되어야”

KREI,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연구 통해 정책과제 제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현황과 등록·등록대행기관 운영 실태,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등록제 활성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소유

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에서는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정보 변경 시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 단계부터 등록 관리를 연계하고, 등록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결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방향으로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록 방식 개선 및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 강화 ▲홍보·캠페인 확대 ▲임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용 지원 확대 ▲등록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김동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반려견(픽사베이)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농장 내부, 사료빈·퇴사차·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치 금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